

외환리포트

## 전일동향

환율은 전일 대비 10.0원 상승한 1,134.10원으로 마감

전일 환율은 옐런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1,130원대 초반까지 상승했다.

이날 환율은 6월 FOMC 이후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스탠스가 부각되며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1,130원선까지 상승해 출발했다. 장초반 환율은 수출업체 네고물량에 하락 압력을 받으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했으나 이후 국민연금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수세에 하단이 지지되며 1,130원대에 안착했다. 오후까지 지속된 역외 롱플레이로 이날 환율은 1,130원대 후반까지 상승했으나 장 막판 주식자금이 빠르게 상승폭 일부를 반납해 전일 대비 10.0원 상승한 1,134.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7.93원 하락한 1,016.82원에 거래되었다.

## 전일 달러 변동

| 시가      | 고가      | 저가      | 종가      | 평균환율    |
|---------|---------|---------|---------|---------|
| 1130.70 | 1138.20 | 1128.40 | 1134.10 | 1133.00 |

## 전일 엔화 변동

| 시가      | 고가      | 저가      | 종가      |
|---------|---------|---------|---------|
| 1012.91 | 1024.83 | 1012.24 | 1022.45 |

## 금일 전망

단기 급등 이후 1,130원대 초반 하락 전망

금일 환율은 단기 급등 이후 조정 압력에 1,130원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은 0.95원(스왑포인트 고려)하락한 1,132.50원으로 마감하였다. 지난주 금요일 1,130원대 후반까지 급등했던 달러-원 환율은 금일 가팔랐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조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FOMC 이후 달러 강세 압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과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상승 흐름을 제한하며 금일 환율은 1,130원대 초반 지지력을 테스트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26.25 ~ 1137.75 원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628.95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95원 ↓

■ 美 다우지수 : 21384.28, +24.38p(+0.11%)

■ 전일 환율환율(달러/원) : 1134.10(전일)

■ 전일 현물환 거래량(송합) : 89.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686 억원

##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